

에이즈와 건전한 성생활

김기원/의사신문 취재부기자

우리나라 여성들은 에이즈와 성생활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보일까?

최근 여자의사회가 개최한 여성건강대강연회 발표 연제중 「에이즈에 대한 여성들의 시각에 의하면, 에이즈에 관련해서는 배타성향 및 수용성향이라는 양면성을 그리고 성생활에 관해서는 막연함과 모호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관심을 끌었다.

즉 우리나라 여성들은 에이즈에 관한 남일 경우 「격리시켜야 한다」라는 생각이 절대우세였지만 가족일 경우 「끝까지 돌보겠다」라는 생각이 절대우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또 성에 관련해서는 「건전한 성생활」이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건전한 성생활」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혼내 성관계」라고 대부분이 응답한 반면에 「건전한 성생활」의 뚜렷한 인식이 없는 막연함과 모호함을 보였기 때문이다.

1천명의 가임여성들은 질문응답에서 「에이즈 예방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편안하게 느낀다」에 70.1%, 「에이즈환자도 다른 만성병환자처럼 의료보험혜택을 줘야한다」에 89.5%가 찬성한다고 응답, 에이즈문제수용에 대한 82%의 전반적인 찬성률을 보였다.

환자격리에 관련해서는 「에이즈에 걸린 가족을 나는 끝까지 돌볼 것이다」가 79.2%를 보인 반면 「에이즈 보균자가 우리아이와 같이 학교에 다닐수 있다」에는 26.2%만이 찬성하여 사실상 73.8%가 감염학생의 격리에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77.7%가 「보균자를 일정한 곳에 격리해야 한다」, 70.6%가 「에이즈보균자는 직장에서 사직해야 한다」, 60.2%가 「에이즈보균자는 직장에서 퇴직시켜야 한다」, 54.1%가 「보균자인 친지와 왕래를 끊을것」, 52.7%가 「보균자인 친구와 왕래를 끊겠다」라고 응답, 68%가 환자격리에 대한 찬성을 보였다.

이같은 양면성은 자기자신 가족과 타인에 대한 입장을 뚜렷하게 보여줘 에이즈예방사업의 최대복병이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라는 에이즈협회등 관계자

들의 말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한편 결혼한 부인 4백 10명을 대상으로 에이즈예방대책과 관련 성문제에 대해 질문한 결과, 대다수가 해결책도 「건전한 성생활」로 응답했다.

그러나 건전한 성생활이라는 막연함과 추상성은 모든 사람에게 서로 다른 뜻으로 전달되고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는 것이 조사자의 생각이었다.

이에 다시 30명의 결혼한 부인들에게 「에이즈예방을 위하여 건전한 성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가고」라고 재질문을 한 결과 「건강한 성생활」, 「깨끗한 성생활」로 답변이 나왔다.

즉, 「건전한 성생활」이란 「문란하게 하지 않는 것」, 「의사를 존중하는 것」, 「항문성교를 하지 않는 것」, 「변태성관계를 하지 않는 것」, 혹은 「청결한 상태에서 성관계하는 것」, 「부부끼리만 성관계를 하는 것」등을 답변했지만 대다수는 「혼내의 성관계」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혼내의 성관계」에서만 「건전한 성생활」이라는 애매함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건전한 성생활이란 무엇인가?」를 질문한 결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성관계」, 「약혼하였거나 결

혼할 사람과의 성관계」, 「신뢰하는 사람과의 성관계」는 건전한 것으로 응답하여 혼내 혼전성관계에서 마음에 맞는 사람과의 성관계는 무조건 「건전한 성생활」이라는 성생활에 대한 막연함과 모호함을 다시 드러냈다.

이같은 사실은 여성들 스스로가 자신과 함께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남편·애인 등 남성들도 매춘을 할 수 있고 성병에 걸릴 수도 있으며 또 이전에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했을 수도 있다는 현실적 가능성을 배제한 것으로 밝혀져 여운을 남겼다.

이는 여성, 특히 결혼한 여성들이 우리나라처럼 매매춘이 성행하는 나라에서는 에이즈는 성병감염에 최대 피해자일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뚜렷하게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결국 에이즈확산방지를 위해서는 남과 가족에 대한 양면성을 보다 완화시켜야 되며 「혼내 성관계」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성관계」는 무조건 순결(?)하다는 맹신을 없애고 구체적인 사실 혹은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성생활태도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

